

이문논총 20집 2000년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제5회 대학원 아시아나 우수 학술논문상 수상 (2000. 11. 22)

람 캄 행 대 왕 비 문 에 관 한 연 구

- 장르 규명과 문학적 가치평가를 중심으로 -

김 유 숙

A Study of Ramkhamhang Inscription in Thai

KIM, Yoo-Sook

<국문초록>

태국의 「람캄행대왕 비문」은 기존의 연구에서 기록문학으로 분류 되어 왔으며 문학적 연구보다는 언어학적이거나 역사학적인 관점에서의 연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이 글에서는 이를 기존의 기록문학에서 보다 구체적인 의미 파악이 가능한 실기문학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완벽하지는 않으나 산문과 함께 나타나는 운문적 운물들을 음운론에 맞추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람캄행대왕 비문」의 장르를 실기문학으로 규정하고 음운론적 분석을 통하여 그 문학적 가치를 새로운 시각에서 평가할 수 있었다.

<Abstract>

In the studies before, Thailand? 「 Ramkhamhang Inscription 」 has been categorized as documentary literature and has been studied in philological and historic view more actively than in literary view.

This study examines the possibility of whether the inscription could be prescribed as a record-base(Silgi) literature, by which its meaning could be more specified than in existing documentary literature, or not. And though it may not be all perfect, it also analysis rhythms in verse that is written along with prose in phonemics. As the result, by prescribing the genre of 「 Ramkhamhang Inscription 」 as record-base literature, and analysing phonemically, the literary value have been drawn in a whole new view point.

I. 서 론

1238년¹ 태국 최초의 국가인 쑤코타이왕국이 성립된 이후, 1283년 3대왕인 「람캄행대왕」에 의해 타이문자가 창제되었다. 람캄행대왕은 새로운 문자를 사용하여 비문을 제작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타이문자로 된 최고(最古)의 자료인 「람캄행대왕 비문」이다. 본고에서는 「람캄행대왕 비문」의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고 비문의 문학적 장르 규명과 음운적 분석을 통해 「람캄행대왕 비문」이 지닌 문학적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람캄행대왕 비문」은 여타 다른 비문들이 역사 기록물로 분류되는 것과는 달리 태국 최초의 문학작품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 이유는 비문의 내용구성과 문장형식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원에 따르면 산문은 어떤 목표를 향하여 똑바로 나아가는 글이고, 운문은 그 안에 어떤 반복적 요소를 지니고 있어 폐탄을 만들어 내는 글²이라고 한다. 「람캄행대왕 비문」은 쑤코타이 왕국의 성립과 발전, 정치와 사회, 그리고 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산문과 운문으로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산문과 운문을 적절히 조화시킨 문장형식이 당대(當代)의 구체적인 사실(史實)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간의 경과에 관계없이 문학적 리얼리티와 현실적 리얼리티를 보여주는 문학적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태국 내에서의 기존의 연구에서도 「람캄행대왕 비문」은 기록문학으로 분류 되어 있을 뿐이며 문학적 연구보다는 언어학적이거나 역사학적인 관점에서의 연구가 더 활발한 편이다.

그러므로 「람캄행대왕 비문」을 문학적 측면으로 접근하여 사실(事實)의 기록이라는 기록물로서 실기 문학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기로 한다.³ 사실 자체는 문학이 될 수 없지만 이것이 객관적 사실의 기록에 머물지 않고 쓰는 이의 자세에 따라 문학성이 개재될 경우에는 문학의 범주에 든다(김용숙 1982 : 393). 또한 실기문학의 장르적 특성은 사실성에 바탕을 둔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데, 기술과 방법은 기록과 표현의 이중적 성격을 지니며, 사실성에 입각하여 교훈적 성과에 치중하고 있으면서 역사와 설화의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화자의 목적 의식이 강하게 드러나는 특성을 지닌다는 것이다(장강남 1997 : 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람캄행대왕 비문」을 기존의 기록문학에서 보다 구체적인 의미 파악이 가능한 실기문학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⁴

그러나 「람캄행대왕 비문」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 즉, 비문이 쓰여진 시기와 작자가 누구인가, 업적을 기리기 위한 비문의 크기에 대한 의문 등등의 여러 가지 논점들을 배제하고 비문의 문학적 측면만에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아울러 비문의 문학적 장르 규명과 완벽하지는 않으나 산문과 함께 나타나는

¹ 쑤코타이왕국의 성립시기가 아직까지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1213년, 1219년, 1238년, 1257년 등의 여러 설 중에서 가장보편적으로 사용되는 1238년을 성립연대로 채택하기로 한다.

²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김옥동(1997 : 113) 참조.

³ 「실기문학」의 개념정의는 1982년 김용숙에 의해서 처음 이루어 졌고, 그 뒤로는 정은임(1988), 이채연(1995) <http://lotus.pwu.sc.kr/~lcy/susa.htm> 참조.

⁴ 그간 서사문학과 기록문학으로 분류되어 왔던 궁중문학과 임진왜란, 병자호란등이 1982년 이래 실기문학이라는 새로운 장르로 연구가 진행되어온 것에 비추어 볼 때 「람캄행대왕 비문」을 실기문학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운문적 운률들을 음운론에 맞추어 분석하여 이에 대한 문학적 가치를 논해 보기로 한다.

II. 람캄행대왕 비문의 구조와 내용

태국의 「람캄행대왕 비문」이 최초로 발견된 것은 1833년 경이다. 라마 4세가 왕위에 오르기 전 불문(佛問)에 출가하여 만행(萬行)을 위해 태국 전역을 다니다가 쑤코타이에서 2개의 비문과 석단을 발견하였다. 이 비문들 중 태국어로 된 것은 「람캄행대왕 비문」이고, 크메르어로 기록된 것은 「리타이왕 비문」이었다. 또한 석단은 태국 최초의 야단법석(野壇法席)인 「마낭카썰라받」으로 고승들과 왕이 계율 설법과 국사를 논의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마 4세는 비문의 손상을 막기 위해 방쪽으로 옮겼으나, 비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와치라얀(現국립도서관)도서관장을 역임한 바 있는 라마6세에 의해 이루어졌다. 라마6세는 비문을 통하여 태국 고고학 및 역사를 집대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당시 와치라얀 도서관장인 담롱라차누팜은 1915년 각 지방에 분산되어 있던 비문들을 발굴하여 체계화하였다(노승환 1991 : 19-20). 본 장에서는 이러한 「람캄행대왕 비문」의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2.1. 람캄행대왕 비문의 구조

2.1.1 형태적 구조

「람캄행대왕 비문」은 1292년 람캄행왕에 의해 만들어 졌다. 형태는 둥근 석주로 전체 높이가 1m 11cm 이고, 글씨가 쓰여 있는 부분의 세로는 59cm, 가로는 35cm 이다. 1면과 2면은 각각 35행, 3면과 4면은 27행으로 기록되어 있다. 총 1,800자 124행으로 구성되어 있고, 행과 연의 구별 없이 산문의 형태로 쓰여 졌으나, 부분적으로 운율적인 언어 표현으로 운문의 형태도 갖추고 있다.

2.1.2 내용적 구조

「람캄행대왕 비문」은 1인칭 주관적 시점과 3인칭 객관적 시점으로 구성되어 있어 제작시기와 작가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1인칭 대명사 푸(ฟู)를 사용한 첫째 부분은 람캄행왕이 직접 지은 것으로 보이며 둘째, 셋째 부분에서는 람캄행왕을 퍼쿤람캄행(ฟูคฺคุณรามคำแหง), 프라람(ฟูระราม)⁵, 퍼쿤프라람캄행(ฟูคฺคุณฟูระรามคำแหง)이라 기록한 것으로 보아, 첫째부분을 완성한 이후에 리타이왕이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 시점이 변경되어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문자의 짜임새에 있어서도 비문의 탁본을 살펴보면 셋째 부분이 첫째, 둘째 부분과 크기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이 그러한 추정을 가능케 하고 있다(노승환 1991 : 21-22).

⁵ 프라람 또는 라마 라는 호칭은 인도의 대서사시 라마야나 에서 차용된 것으로, 라마 이야기가 수천 년 동안 구전되어 내려 비슈누신 으로 신격화 되었다. 따라서 라마 는 진취적이고 용맹스러우며, 슬기롭고 정의로운 인물로 상징된다.

2.2. 람캄행대왕 비문의 내용

「람캄행대왕 비문」의 내용은 크게 도입부, 전개부, 종결부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항에서는 이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2.2.1 도입부

도입부는 1면 1행에서 17행 까지로 왕 자신의 자전적 내용인데, 람캄행왕이 등극할 때까지의 자전적 이력과 도덕적 품행에 대해 1인칭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พ่อกูซื้อศรีอินทราทิตย์ แม่กูซื้อนางเสือง พี่กูซื้อบ้านเมือง ดุพี่น้องท้องเดียวห้าคน ผู้ชายสาม ผู้หญิงโสด
พี่เพื่อผู้้ายตายจากเพื่อเดียมแต่ยังเล็ก

เมื่อกูขึ้นใหญ่ได้สืบเก่าเข้า ขุนสามชนเจ้าเมืองจอตมาทอเมืองตาก พ่อกูไปรบขุนสามชนหัวข้าย ขุนสามชน
ขับมาหัวขวา ขุนสามชนเกลื่อนเข้า ไฟรผ้าหน้าใส่พ่อกูหนีญญายพายจะแจ้(น) กูบหนี กูขี่ช้างเบกพล
กูขับเข้าก่อนพ่อกู กูดอช้างด้วยขุนสามชน ดนกูฟุ้งช้างขุนสามชนตัวข้อมาสเมืองแพ้ ขุนสามชนพายหนี
พ่อกูจึงขึ้นชื่อพระรามคำแหง เพื่อกูฟุ้งช้างขุนสามชน

เมื่อชั่วพ่อกู กูบำเรอแก่พ่อกู กูบำเรอแก่แม่กู กูได้ตัวเนื้อตัวปลา กูเอามาแก่พ่อกู กูได้หมากส้ม
หมากหวาน อันใดกินอร่อยกินดี กูเอามาแก่พ่อกู กูไปตีหนังวังช้างได้ กูเอามาเวนแก่พ่อกู พ่อกู
ตาย ยังพี่กู กูพำบำเรอแก่พี่กูดังบำเรอแก่พ่อกู พี่กูตายจึงได้เมืองแก่กูทั้งกลม

나의 아버지 이름은 「씨인트라탓」, 나의 어머니 이름은 「낭쓰영」, 그리고 나의 형 이름은 「반쓰영」이다. 어머니가 같은 형제는 다섯 명으로 3남 2녀이다. 형은 어렸을 때 죽었다.

내가 19살 되던 해, 「철」나라의 군주인 「쌈촌」이 「딱」나라로 쳐들어 왔다. 아버지는 「쌈촌」의 좌측에서 공략했고, 「쌈촌」은 우측으로 진격해 왔다. 「쌈촌」이 돌격해오자 아버지 휘하의 병사들은 당황하여 도망쳤다. 나는 도망가지 않고 「백폰」이라는 코끼리를 타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 「쌈촌」의 코끼리와 싸움을 했다. 나는 「반쓰영」이라 「쌈촌」의 코끼리와 싸워 그를 물리쳤다. 「쌈촌」은 도망을 갔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내가 「쌈촌」의 코끼리와의 격투에서 이겼다고 나에게 「프라람캄행」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봉양했다. 나는 짐승이나 물고기를 잡아 아버지께 드렸고, 달콤한 과일이나 맛있는 것은 무엇이든 아버지께 드렸다. 나는 사냥터에 나가 포위하여 잡은 코끼리를 아버지께 드렸다. 나는 이웃의 마을이나 부락을 급습하여 포획한 코끼리와 포로로 삼은 남녀, 그리고 빼앗은 금은을 아버지께 드렸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아직 형이 살아 있을 때 나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형을 잘 받들었다. 형이 죽자 모든 영토는 내 것이 되었다.

2.2.2 전개부

전개부에서는 사회적 상황을 서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면 18행에서 31행까지는 쑤코타이의 풍요로운 경제 생활과 시장경제, 재산소유권, 포로 문제등을 기술하고 있다.

เมื่อชั่วพวขุนรามคำแหง เมืองสุโขทัยนี้ดี ในน้ำมีปลา ในนามีข้าว เจ้าเมืองบ่เอาจกอบในไพร่
ลู่ทางเพื่อนฝูงว้ไปค้าขี้นมาไปขาย ใครจักใครค้าข้าง ค้า ใครจักใครค้าม้า ค้า ใครจักใครค้าเงินค้ำทอง
ค้ ไพร์ฟ้าหน้าใสลูกเจ้าลูกขุนผู้ใดแลล้มตายหายกว่า อ้ายวเรื่อนพ่อเชื้อเชื้อค้ำมัน ข้างขอ ลูกเมีย
เยี่ยเข้า ไพร์ฟ้าชาวไทย ปาหมาก ปาพลู พ่อเชื่อนั่น ไวแก่มันสิ้น ไพร์ฟ้าลูกเจ้าลูกขุน
ผีแลผิดแผกแสง กว้างกัน สวนดูแท้แลจึงความแก่ชาด้วยชื่อ บ่เข้าผู้ลักมักผู้ซ่อน เห็นเข้าท่านบ่ใครพิน
เห็นสินท่านบ่ใครเดือด คนใดชี้ข้างมาหา พาเมืองมาสู่ ข้อยเหนือเพือกกู มั่นบ่มีข้างบ่มีมา บ่มีบัว
บ่มีนาง บ่มีเงิน บ่มีทอง ให้แก่มัน ช่วยมันตวงเป็นบ้านเป็นเมือง ได้ข้าเลือกข้าเลื้อหวัรบก็ดี
บ่ขำบ่ดี

람감행왕 시대의 「쑤코타이」왕국은 풍요로웠다. 물에는 물고기가 있고 논에는 쌀이 있다. 왕은 통행세를 징수하지 않아 백성들은 자유로이 소를 끌고 말을 몰아가 장사를 한다. 코끼리를 팔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금을 팔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평민이나 귀족이 죽었을 때에 길들인 코끼리, 처자, 양식, 하인, 빈랑나무, 구장나무 같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은 모두 그의 아들 소유로 된다. 평민이나 혹은 귀족들의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엄밀히 심문하여 사실을 밝혀 그들에게 공정하게 사건을 심판한다. 도둑이나 장물을 숨기는 사람이 없도록 한다. 남의 물건을 보고 탐내지 않고, 남의 재산을 보고 시기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코끼리를 타고 영토에 들어 오면 왕은 그들을 기꺼이 도와 주었다. 적군이나 적장의 우두머리를 생포했을 때 그들을 죽이거나 매질을 하지 않았다.

2) 1면 32행에서 2면 1행까지는 통치자인 왕에게 국민이 직접 호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ในปากปดุมักดิ่งอันถึงแขวนไว้นั้น ไพร์ฟ้าหน้าปก กลางบ้านกลางเมืองมีถ้อยมีความ เจ็บท้องข้องใจ
มันจักกล่าวถึงเจ้าถึงขุนบ่ไว้ ไปลั่นกดิ่งอันท่านแขวนไวพวขุนรามคำแหงเจ้าเมืองไดยืน เรียกเมื่อถาม
สวนความแก่มันด้วยชื่อ ไพร์ในเมืองสุโขทัยนี้จึงชม

성문 앞에 종을 매달아 분쟁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백성들은 종을 쳐 어렵지 않게 통치자에게 호소할 수 있었다. 람감행왕은 그 종소리를 듣고 호소한 사람을 불러들여 사정을 듣고 연유를 조사하여 공정하게 판결한다.

3) 2면 2행에서 8행까지는 도시건설의 형태와 저수지 건설등의 관개시설, 상당히 발달된 도시 형태

로 잦은 외세의 침입에 대비하는 한편 세력확장에 유리한 도시건설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กลางเมืองสุโขทัยนี้มีน้ำตระพังโพยสี่ ไสกินดี...ตั้งกินน้ำโขงเมื่อแล้ง รอบเมืองสุโขทัยนี้ได้รับรู้ได้สาม พันสี่ร้อยวา

「쑤코타이」도시 안에는 「뜨라광포이씨」라는 연못이 있다. 물맛이 좋다....건기가 되어 콩강의 물을 먹듯이 이 물을 먹었다. 「쑤코타이」도시는 3중의 성벽(뜨리분)으로 되어 있고, 그 길이는 3,400「와」⁶이다.

4) 2면 9행에서 2면 23행에는 지위고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불교를 신봉하여 일상생활에서 계율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을 기술하고 있다.

พ่อขุนรามคำแหงเจ้าเมืองสุโขทัยนี้ ทั้งชาวแม่ชาวเจ้า ท่วยปั่วท่วยนาง ลูกเจ้าลูกขุน
ทั้งสิ้นทั้งหลาย ทั้งผู้ชายผู้หญิง ผูกทวยมีศรัทธาในพระพุทธศาสนา ทรงศีลเมื่อพรรษาทุกคน
เมื่อโอกาสพรรษากุลขึ้นเดือน ถึงจึงแล้ว เมื่อกรานกฐิน มีพนมเบี๋ย มีพนมหมาก มีพนมดอกไม้
มีหมอนนั่งหมอนนอน บริวารกฐิน โอยทานแลป์แลญบลัง่าน ไปสุดญัตกฐินถึงอไรญักพัน

「쑤코타이」왕국의 「람감행」왕을 비롯하여 왕자와 공주, 남녀 왕족과 모든 귀족들, 그리고 남녀 구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불교를 믿는다. 우안거 때에는 계율을 지킨다. 우안거가 끝나면 「까틴」행사를 거행한다. 그것은 1개월이나 계속 된다. 「까틴」행사에는 꽃봉오리, 빈랑 나무 열매, 꽃 베개와 방석 등을 공양한다. 신도들이 매년 승려들에게 바치는 공양물은 200만 「비아」⁷에 이른다. 「쑤언얏」⁸ 의식을 「까틴」행사동안 「아라이익」⁹사원에 가서 행한다.

5) 2면 20행에서 21행 까지 동,서,남,북, 4방향의 성문이 있어 위수 도시와의 연계 및 도로발달 상황을 알 수 있게 해준다.

เมืองสุโขทัยนี้มีสี่ปากประตูหลวง

「쑤코타이」도시 안에는 큰 대문이 4개 있다.

6) 2면 23행에서 27행까지는 쑤코타이 중앙부(도시 안), 승려들의 법력에 따른 지위와 불당, 불상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⁶ 1 와 (วา) = 4 켄 (ศอก), 양팔을 펼친 길이로 약 2m.

⁷ 쑤코타이 시대로부터 최저가치의 통화로 사용되었던 조개화폐의 종류이다. आयुताय 시대에는 보통 100 비아 (เบีย)가 1 알 (อัฏฐ) (= 1.5 싸땅 (สตางค์)에 해당되었다.

⁸ 젊은이가 불도를 닦고자 할 때 입문시켜야 하는가 아닌가를 세번 묻는 의식.

⁹ 아라이익 또는 아란익 은 발리어로 숲이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숲속에 있는 사원의 통칭이나 본문에 나오는 아란익 사원은 지금의 왓싸판힌 을 말한다.

กลางเมืองสุโขทัยนี้มีพิหาร มีพระพุทธรูปทอง มีพระอิฐรุต มีพระ(พุ)ทธรูป มีพระ
พุทธรูปอันใหญ่ มีพระพุทธรูปอันราม มีพิหารอันใหญ่ มีพิหารอันราม มีปคร มีสไ(สยาม)ต
มีเถร มีมหาเถร

「쑤코타이」도시 안에는 불당, 금불상이 있고 「프라앗타룻」¹⁰ 불상이 있다. 불상은 큰
불상도 있고 중간 크기의 불상이 있다. 크거나 중간 크기의 불당도 있다. 「넛싸싸이야문」, 「테
라」, 「마하테라」¹¹ 에 해당되는 승려도 있다.

7) 2면 28행에서 32행까지는 쑤코타이 서쪽, 「마하테라쌍카랏」즉 종정 또는 승왕에 해당하는 스
님이 계신 「아란익」사원에 왕이 직접 가서 보시하였음을 기술함으로써 불교와 왕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เมืองตะวันตกเมืองสุโขทัยนี้มีอรัญญิก พ่อขุนรามคำแหงกระทำไอยทานแก่ มหาเถรสังฆราช
ปราชญ์เรียนจบปิฎกไตร หลวกกว่าปครในเมืองนี้ทุกคน ลูกแต่เมืองศรีธรรมราชมา ในกลาง
อรัญญิก มีพิหารอันถึง มนใหญ่สูงงามแก่กม มีพระอิฐรุตอันถึงลูกยืน

「쑤코타이」서쪽에는 「아란익」사원이 있는데, 람캄행왕은 「마하테라쌍카랏」에게 금품을
보시한다. 이 승왕은 「씨탐마랏」에서 온 승려로서 삼장(三藏)¹²에 능통하고, 지혜는 모든
승려들 중에서 으뜸이다. 「아란익」사원 안에는 장방형의 높고 화려한 불당이 있으며 「프
라앗타룻」¹³ 입불상도 있다.

8) 2면 33행에서 35행까지는 쑤코타이 동쪽이 비교적 평야가 많은 지역으로 여러가지 재배하는
농산물이 있다는 것과 농경사회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เมืองตะวันออกเมืองสุโขทัยนี้มีพิหาร มีปคร มีทะเลหลวง มีป่าหมากป่าพลูมีไรมีมา
มีถันถ่าน มีบ้านใหญ่บ้านเล็ก มีปาม่วง มีป่าขาม ดงามกังแกล(ง แต่)ง

「쑤코타이」동쪽에는 불당이 있다. 고승(高僧)들이 있다. 광대한 평야가 있다. 빈랑나무
숲과 빵나무 숲이 있다. 논밭이 있다. 농가가 있다. 크고 작은 부락이 있다. 망고와 타마린
드 숲이 있다. 만든 것처럼 아름답다.

9) 3면 1행에서 3행까지는 쑤코타이 북쪽은 시장이 있어 교환경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또한 불교를 신봉하고 있었음을 기술하고 있다.

¹⁰ 마하탓 사원에 있는 불상. 앳타룻은 팔리어로 18이란 뜻이며, 18계율을 의미하기도 한다.

¹¹ 넛싸싸이야문은 5년 동안 수행한 승려, 테라는 10년이상, 마하테라는 12년 이상의 법력을 쌓은 승려
를 일컬으며 쌍카랏은 승왕을 뜻한다.

¹² 율장은 승려의 계율에 관한 것으로서 3부로 나뉘어져 있고, 경장은 교리와 사건에 관한 것을 집성한
것으로서 5부로 되어 있으며, 논장은 석가모니의 교설을 해설한 것으로서 7부로 되어 있다.

¹³ 비문 집필 당시 숲속에 있는 사원이라는 뜻의 아란익사원이라 칭했었으나, 후에 사람들이 참배의 편
이를 위해 산에 오르는 길을 돌로 만든 것에서 유래하여 왓싸판힌이라 불리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เมืองดินนอนเมืองสุโขทัยนี้มีตลาดปสาน มีพระอันจะ

「쑤코타이」북쪽에는 시장이 있다. 「프라앗짜나」¹⁴ 불상이 있다.

10) 3면 4행에서 10행까지는 쑤코타이 남쪽의 지역사정 및 초창기 불교가 토속신앙과 자연스럽게 접목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เมืองหัวนอนเมืองสุโขทัยนี้มีภูฎีพินารปรอยู่ มีสรัดกงส มีปาพราวปาลาง มีปาม่วงปาชาม
มีน้ำโคก มีพระขพง ศีเทพดาในเขอันนั้นเป็นใหญ่กว่าทุกผีในเมืองนี้ขุนผู้ใดถือเมืองสุโขทัยนี้แล
ไหวดีพลีถูก เมืองนี้เที่ยง เมืองนี้ดี ศีไหวบดีพลีถูกผีในเขอันนั้นคุ้มบเกรง เมืองนี้หาย

「쑤코타이」남쪽에는 승려들이 거처하는 승방이 있다. 「씨다풍」저수지가 있다. 야자나무와 팽나무 숲이 있다. 망고와 타마린드 숲이 있다. 샘물이 있다. 「프라카풍」산이 있다. 그 산의 신령은 「쑤코타이」왕국의 다른 신령보다도 원력이 높다. 「쑤코타이」를 다스리는 어떤 군주라도 이 신령에게 제물을 공양하고 경배를 드리면 나라가 잘 된다. 제물을 공양하지 않고 경배를 드리지 않으면 신령은 노한다. 나라가 멸한다.

11) 3면 10행에서 27행까지는 「마낭카썰라반」석단의 쓰임과 왕의 불법수행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๑๒๑๔ ศกปีมะโรง พ่อขุนรามคำแหงเข้าเมืองศรีสังขาลย์สุโขทัยนี้ ปลุกไม้ดาลนี้ได้ลิสีเข้า
จึงให้ช่างพื้นขดานหินตั้งหว่างกลางไม้ดาลนี้ วันเดือนดับ เดือนโถกแปดวัน วันเดือนเต็มเดือนบ่าง
แปดวัน ฝูงปู่ครู เถรมหาเถรขึ้นนั่งเหนือขดานหิน สุคธรรมแก่อุบาสกฝูงท่วยจำศีล ศีใช้วันสุคธรรม
พ่อขุนรามคำแหงเจ้าเมืองศรีสังขาลย์สุโขทัย ขึ้นนั่งเหนือขดานหิน ให้ฝูงท่วยลูกเจ้าลูกขุน ฝูง
ท่วยถือบ้านถือเมืองคัล วันเคื่อนคับเคื่อนเต็ม ท่านแต่งข้างเผือกกระพคัลยาง เทียรยอมทองงา...
ชาวชื้อจากรี พ่อขุนรามคำแหงขึ้นขี่ไปนบพระ...อรัญญิกแล้วเข้ามา

용(龍) 해인 1214년, 「씨앗차나라이 쑤코타이」왕국의 람캄행왕이 당중나무 숲 가운데에 설치 하도록 명령했다. 상현달의 7-8일, 보름, 하현달의 22-23일, 그리고 그믐날에 「뿌크루」, 「테라」, 「마하테라」와 같은 고승들이 그 석판 위에 앉아 계율을 준수하는 많은 백성들에게 불법을 설교한다. 설법의 마지막 날에는 「씨앗차나라이 쑤코타이」왕국의 람캄행왕이 석판에 앉아 왕족, 귀족들과 국사를 처리하는 관료들을 접견한다. 초승과 보름에 「루썸카리」라는 흰 코끼리에 상교(象輜)를 얹고 금으로 상아를 장식한다. 람캄행왕은 그것을 타고 「아란익」사원에 가서 예불을 올리고 돌아온다.

2.2.3 종결부

¹⁴ 씨춤사원에 있는 좌상.

중결부는 왕의 업적을 기록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4면 1행에서 8행까지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프라마하탓」탑이 건설 되었음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พ่อขุนพระรามคำแหง ลูกพ่อขุนศรีอินทราทิตย์ เป็นขุนในเมืองศรีสัชนาลัยสุโขทัย ทั้งมา
กาวลาว แล้วไทยเมืองใต้หล้าฟ้าต่อ...ไทยขาวอุขาวของ มาออก ๑๒๐๗ ศกปีกุน ให้ขุดเอา
พระธาตุดอก ทั้งหลายเห็น กทมูชาบาเรอแก่พระธาตได้เดือนหกวัน จึงเอาลงฝังในกลางเมือง
ศรีสัชนาลัย ก่อพระเจดีย์เหนือ หกเข้าจึงแล้ว ตั้งเวียงผาล้อมพระมหาธาตุ สามเข้าจึงแล้ว

「씨인트라틴」왕의 아들인 람캄행왕은 모든 「마」족, 「카오」족, 「라오」족을 비롯하여 멀리
떨어져 사는 「타이」족, 「우」강과 「콩」강 유역에 살고 있는 「타이」족들을 포함한 「씨앗차나
라이 쭈코타이」왕국의 지배자이다. 폐지 해인 1207년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부
처님의 사리를 파내도록 하였다. 사람들은 한달 육일 동안 그것을 참배하고 경축했다.
그 후 사리는 「씨앗차나라이」도시 한가운데 묻혀졌다. 그 위에 「프라마하탓」¹⁵ 탑을 세웠
다. 「프라마하탓」탑을 둘러싼 돌담은 3년이 걸렸다.

2) 4면 8행에서 17행까지에는 람캄행왕의 타이문자 창제와 전 국민의 스승인 최고의 군주로 칭
송하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다.

๑๒๐๕ ศกปีมะแม พ่อขุนรามคำแหงหาใครใจในใจแล้วใส่ลายสือไทยนี้ ลายสือไทยนี้จึง
มีเพื่อขุนผู้นั้นใส่ไว้ พ่อขุนพระรามคำแหงนั้น หาเป็นท้าวเป็นพระยาแก่ไทยทั้งหลาย หาเป็น
ครูอาจารย์สั่งสอนไทยทั้งหลาย ให้รู้บุญรู้ธรรมแท้ แต่คนอันมีในเมืองไทย ด้วยรู้ด้วยหลง
ด้วยแก้งด้วยหาญ ด้วยแคะด้วยแรง หาคณจักเสมอมิได้ อาจปราบฝูงข้าศึก มีเมืองกว้าง
ข้างหลาย

양해인 1205년 람캄행왕은 타이문자를 만들려고 결심했다. 오늘날의 타이 문자는
왕이 고안하고 만들었다. 람캄행왕은 태국 전 영토의 군주이며, 모든 태국 사람에게 덕과
불법을 올바르게 가르친 스승이다. 태국에 사는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이 총명하고, 용감하
고, 강한 사람은 없다. 그는 많은 적국을 정복하고 많은 코끼리를 소유하였다.

3) 4면 17행에서 26행까지로 영토확장에 따른 쭈코타이왕국의 국경구분을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ปราบเบื้องตะวันออก รอดสรลงสองแคว ลุมบาจายสดา เท้าฝั่งของ เล็งเวียงจันทน์
เวียงคำเป็นที่แล้ว เบื้องหัวนอน รอดคนที่ พระบางแพรก สุพรรณภูมิ ราชบุรี ศรีธรรมราช
ฝั่งทะเลสมุทรเป็นที่แล้ว เบื้องตะวันตก รอดเมืองจอด เมือง...น หงสาพิติ สมุทรหา

¹⁵ 앗타룻불상이 있는 쭈코타이와 씨앗차나라이에 각각 마하탓 사원이 있다.

เป็นแดน เมืองดินนอน รอดเมืองแพล เมืองมาน เมืองน...เมืองพลัว พันฝั่งของ
เมืองขวาเป็นที่แล้ว

정복한 곳은 동쪽으로 「씨라루엥」, 「썰케우」, 「롬바짜이」, 「싸카」와 콩강의 양쪽에 있는 「위양짠」과 멀리 있는 「위양캄」에 까지 다다른다. 남쪽으로는 「카나티」, 「프라방」, 「프랙」, 「쑤판나품」, 「랏부리」, 「팻부리」, 「씨탐마랏」과 아주 멀리 해안을 포함한다. 서쪽으로 「므엥천」, 「므엥...」, 「홍싸파디」와 바다 주변까지이다. 북쪽으로는 「므엥프레」, 「므엥만」, 「므엥...므엥플루어」, 「콩」강가와 멀리 「므엥차와」를 포함하고 있다.

4) 4면 26행에서 끝까지로 쑤코타이는 농업국이며 불교를 신봉하였음을 기술하고 있다.

ปลูกเลี้ยงฝูงลูกบ้านลูกเมืองนั้นชอบด้วยธรรมทุกคน

농사짓고 가축을 기르며 이 영토에 사는 백성들은 모두 불법 지키기를 좋아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람캄행대왕의 비문은 람캄행 대왕의 내력에서부터 수코타이왕국의 사회적 상황, 람캄행 대왕의 업적등에 대해서 폭 넓게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비문의 문학적 가치

앞장에서 우리는 「람캄행대왕 비문」의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람캄행대왕 비문」의 문학적 장르를 새로이 규명하고 음운론적 분석을 통하여 비문이 갖는 문학적 가치를 논하기로 한다.

3.1 문학적 장르 규명

문학의 장르는 문학의 종류를 작품적 질서에 따라서 구분할 때 등장하는 개념으로, 문학을 장르로 구분하는 작업은 분류의 편의상 생긴 것이기도 하지만, 문학작품은 어떻게 창작되고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탐구를 위해서 더욱 적극적인 의의를 갖는다(조동일 1992, 장강남 1997).

장르를 규정하는 서정·서사·극이라는 삼분법이 시학에서 유래한 이래, 장르의 경계선은 끊임없이 침범되고, 장르들은 결합되거나 융합되고, 옛 장르들은 버려지거나 변형되고, 새 장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것은 장르 연구가 장르를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개별 작품 및 문학 전체를 보다 충실하게 이해하는 수단으로 채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탈장르적 입장에서 시도된 주제적 양식에 귀속시켜 <실기문학>이란 장르가 제시 되었다. 김용숙(1982)의 <실기문학>이란 장르 설정은 매우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서, 종래의 관점으로 본다면 「람캄행대왕 비문」도 서사문학의 범주에 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실기문학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실기라는 것이 사실 그 자체의 기록인 역사와, 사실의 상상적 대치물인 역사 소설과는 서술 방법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차이가 바로 실기

문학의 독자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람캄행대왕 비문」은 이러한 독자성을 확보하고 있다. 「람캄행대왕 비문」을 실기문학의 한 장르로 규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실기문학의 몇 가지 특징에 대입시켜 그 타당성을 논의해 보기로 한다.

첫째, 실기문학의 서술자는 1인칭의 '나'로 나타나는데, 도입부에서 꾸(กู,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였다. 이는 자신이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만 진술하는 경험자적 시각을 갖는 '극화되지 않은 화자'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실기문학에는 요약적 서술과 장면적 묘사의 서술방법이 동시에 나타나지만, 요약적 서술이 보다 두드러지는 것은 정보의 전달과, 사건의 경위 설명이라는 보고적인 목적이 있다. 람캄행대왕 비문에 나타나는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ในน้ำมีปลาในนามีข้าว¹⁶

물에는 고기가 있고, 논에는 쌀이 있다. (풍요로웠음을 나타낸다)¹⁷

ใส่กินดี...ตั้งกินน้ำโขงเมื่อแล้ง

건기에도 이 연못의 물을 콩강의 물을 사용 하는 것처럼 풍부하게 사용하였다.¹⁸

(그 당시 수리관개를 알 수 있다)

ปลูกเลี้ยงฝูงลูกบ้านลูกเมืองนั้นชอบด้วยธรรมทุกคน

농사짓고 가축을 기르며 이 영토에 사는 백성들은 모두 불법 지키기를 좋아한다.

(그 당시 불법이 행사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지켜지고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실기문학은 작가가 경험한 대상만을 소재로 하여 그 소재에 대한 기억이 소멸되지 않는 시점에서 씌여진 것이기 때문에 사건, 인물, 시공간의 유기적인 짜임새가 약화되어 있다. 「람캄행대왕 비문」또한 전개부에서부터는 1인칭 「꾸(กู)」에서 「폐군람캄행(พ่อขุนรามคำแหง)」으로 전환되어 객관적인 3인칭 시점이 주를 이룬다. 시점의 변화로 내용전개에서 일관성이 없다는 약점과 역사 전개 과정에서 사건의 진행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할 수 있다.

1214년 (서기 1292년) (3면 8행) ศกปีมะโรง พ่อขุนรามคำแหงเข้าเมืองศรีสัตนาคนหุตขัยนี้

용(龍) 해인 1214년, 「씨쌌차나라이 쑤코타이」왕국의 「람캄행」왕이 당종나무 숲 가운데에 설치 하도록 명령했다.

¹⁶ 비문에서 เข้า는 두가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뜻의 '들어가다'와 고어(古語)로 '쌀'이라는 뜻으로 지금의 ข้าว로 쓰였다. 예) เมื่อถูกขึ้นใหญ่ได้สืบเก่าเข้า และ ในนามีข้าว

¹⁷ 태국의 주식은 쌀과 생선이다. 태국에서 ข้าวปลาอาหาร은 '쌀'과 '생선' 그리고 '음식'이라는 단어의 복합어로 되어 있는데, 단어의 뜻은 '먹을 것', '먹거리'등의 의미이다.

¹⁸ 물은 종교적으로 정화 의 의미와 함께 더운 나라인 태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207년 (서기 1285년) (4면 4행) ศกปีขุน ให้ชุดเอาพระธาตุออก ห้างหลายเห็น

폐지해인 1207년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사리를 파내도록 하였다.

1205년 (서기 1283년) (4면 9행) ศกปีมะแม พ่อขุนรามคำแหงหาใครใจในใจแลใส่ลายสือไทยนี้

양해인 1205년 「람캄행」왕은 타이문자를 만들려고 결심했다.

넷째, 실기문학은 움니버스 구성으로 작가의 관심사를 초점화하는 한편 주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사건을 다루지 않으며, 이러한 개별적인 소재들은 단일한 주제 속에 용해됨으로써 전체적인 통일성을 기하고, 그 시대의 다양한 모습들을 유추시켜 준다는 긍정적 의미도 갖고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아버지가 씨인트라탓이고 어머니가 낭쓰엥이라는 기록은 단지 혈연관계를 나타내는 것 외에도 쑤코타이왕국의 성립에 대한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크메르왕국의 속국이었던 이 지역 랏국의 성주인 파므엥왕과 방양국의 성주인 방끌랑하우왕은 독립을 열망하는 타이족이었다. 따라서 파므엥왕은 쑤코타이국을, 방끌랑하우왕은 씨삿차나라이국을 공략하여 점령하였으나 파므엥왕은 방끌랑하우왕을 쑤코타이왕국의 씨인트라탓왕으로 추대하고 랏으로 돌아갔다. 정설은 아니나 그 이유 중 하나가 파므엥왕의 부인이 크메르왕의 딸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으로 보아 크메르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으로 여겨진다. 낭쓰엥은 파므엥왕의 딸이며 씨인트라탓왕과 결혼하였다.

2) 「천」국과 용감히 싸워 이를 격퇴시키자 아버지 씨인트라왕은 아들에게 정의롭고 용맹스러운 왕으로서 부강한 국가를 이루기를 염원하여 람(라마)의 칭호를 내렸다고 볼 수 있다.

3) 쑤코타이의 정치형태와 사회상황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내용으로 성의 동(กำแพงหัก : 캄팽학), 서(ฉั่ว : 어), 남(นะโม : 나모), 북(ศาลหลวง : 샨루엥)으로 4개의 문이 있으며, 이 문들을 통해 북쪽으로 씨삿차나라이, 동쪽의 피싸누룩, 서쪽의 캄팽팻, 남쪽으로는 피쨌에 위치한 위수 도시를 연결 하였다. 중앙부는 직접 관할하였고 외곽도시는 친척이나 관료를 파견하여 상부로부터 정치행정상의 지시만 따르던 뿐 각 도시는 정치, 행정면에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분권정치를 하였다. 따라서 성문 앞에 종을 매달아 놓고 억울한 사정이 있는 백성은 종을 울려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해주었다. 백성의 청원을 왕이 직접 해결하여 주었던 이러한 제도는 군주로 하여금 공정하게 정치하도록 견제하는 권한을 백성이 갖도록 함으로써 직접 통치 할 수 없는 지역의 권력에 대한 견제로 볼 수 있다.

또한 수도인 쑤코타이와 이 수도의 동쪽, 북동쪽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정도이고 나머지 지역은 산간 지역이므로 쑤코타이 서남쪽에 씨다퐁 저수지를 만들어 실제 농사를 짓는데 편의를 도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씨다퐁 저수지는 끼우아이망(กัว้ย้มาง) 산에서 싸오허(เส้าหอ) 운하로 흐르는 계곡물을 모아 프라광응언(ตระพังเงิน), 프라광팅(ตระพังทอง), 프라광꾸언(ตระพังกวณ), 프라광포이씨(ตระพังโพยสี)의 4곳의 못으로 보내졌다. 이러한 지형상의 여건으로 보아 논농사에 알맞는 토지가 적었을 것이며 그러한 이유로 상업이 발달하게 되었으며 왕은 이를 적극 권장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무역로는 속국인 머따마를 통하여 딱시를 통과하는 도로로 주로 인도 상인이나 아랍 상인들이었고 "무역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

든 할 수 있다." 는 기록에서와 같이 무역은 관세를 지불하지않는 자유무역을 권장 지원하였다. 무역상의 편의를 위하여 도시간에 도로를 건설하고 그 결과 쑤코타이왕국의 지위를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만들었다.

4) 람캄행왕은 스리랑카로부터 상좌부불교(Theravada Buddhism)를 도입하고 발리어로 된 경장, 율장,논장에 능통한 상좌승을 나킨씨탐마랏으로부터 모셔와 종정승으로 추대하는등 상좌부 불교를 전파하는데 앞장섰다. 이는 이 지역 브라만교의 영향력을 불식시켜 독립을 확고히 하고 또 다른 이유로는 영토확장으로 인하여 방대해진 영토의 백성들을 결속시키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실례로 람캄행왕은 한달에 4번씩 고승들과 함께 마낭카쉴라반 석단에 앉아 백성들에게 불법을 가르치고 함께 수행했으며, 온 백성은 지위고하, 남녀노소, 반상의 구별없이 일상생활에서 5계를 지키고 우안거¹⁹는 평상시에 지키는 5계에 3계¹⁹를 더하여 8계를 지키며 불심을 닦은 후 우안거²⁰가 끝나면 까틴 행사를 거행하였다 (김영애 1997, 김홍구 1999 :145).

그외에도 쑤코타이 국민으로서의 자긍심과 불심을 고양시키기 위해 불상을 조성하였다.¹ 쑤코타이 불상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으로 부처가 걷는 모습의 보행상을 들 수 있고, 서 있는 모습의 입상, 앉은 형태의 좌상, 누워 있는 모습의 와상과 보행상의 네가지 형태를 한자리에 조성하였으며, 프라앗 짜나와 프라앗타룻과 같이 거대한 불상을 들 수 있다(พิพิธภัณฑสถานแห่งชาติสุวรรณภูมิ, 1984 : 81-82).

5) 태국 문자는 크메르 문자를 변형시켜 창제하였다는 설이 유력한데, 크메르 문자에는 비문기록과 불교경전등을 기록하는데 사용하였던 정자체문자와 일반공문서나 문학작품을 쓰는데 사용하였던 흘림체문자가 있었다. 람캄행왕은 크메르의 흘림체문자를 바탕으로부터 개선된 문자를 만들었으며 성조부호를 사용하는 독창적인 형태의 문자를 창제하였다.(최창성 1990:32).

6) 불교 포교와 더불어 토착신인 프라카풍산신의 중요성을 강조한 비문의 기록 내용으로 미루어 선주민의 토착신앙을 수용함과 아울러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7) 람캄행왕은 타이문자를 만들고 현재의 태국보다 더 넓은 영토를 정복 했으며, 국민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 아버지 같은 군주이며, 스승인 동시에 정의롭고 전지전능한 왕으로 칭송 되었다.

이와같이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하여 람캄행왕이라는 인물과 당시의 사회적 현상이 하나의 연대성을 갖게 되어 쑤코타이 시대의 평온함을 극대화 시키고 있다.

다섯째, 일부 실기문학에 나타나있는 시(詩)들은 산문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의미 전달면에서 유효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용적 목적을 위해 산문 대신에 시를 쓴 경우가 있었는데 교리나 도덕규범을 적어 놓을 때에 주로 시를 썼다. 예를 들면 힌두교의 경전이나 구약성서 가운데서도 예언서를 비롯한 「아가」나 「읍기」가 시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김옥동 1997: 111) 「람캄행왕 비문」도 계도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특징과 형식적인 면에서 산문적 형태로 지어졌으나 운율이 조화를 이루는

¹⁹ 5계-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에 빠지지 말라, 3계-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분에 넘치는 장신구를 피하라, 편안한 잠자리를 삼가라, 적게 먹고 오후에는 먹지 말라.

²⁰ 지역에 따라 다르나 대략 7월에서 9월까지의 3개월 동안 승려들이 우기에 외출을 삼가고 절에 기거하는 것을 말한다.

운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다.²¹⁾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람캄행대왕 비문」은 사실의 기록이면서 실기문학이 지녀야 할 요소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점에서 볼 때 단순한 역사 기록의 범위를 넘어서서 실기문학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2 음운론적 분석

「람캄행대왕 비문」은 태국 음운론의 효시가 된다 할 수 있다. 비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면서도 일정한 규칙에 따른 리듬이 발견된다. 일정한 리듬에 기초하는 글을 운문이라 하지만, 운율을 밟고 있으면서도 아직 시가 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글을 운문이라고 부를 수 있다. 운문이란 글자 뜻대로 풀이하면 운율이나 율격을 지닌 글을 말하며(김옥동 1997 : 112), 율격이란 언어의 운율적 생성을 위한 일정한 규범으로써 시정서의 표현을 유효하게 고조하려는 시의 한 방법이다. 율격은 언어의 성질의 상이에 따라 반드시 같지는 않으나 대개 <음성률(音性律)>, <음위율(音位律)>, <음수율(音數律)>²²⁾ 의 세가지로 나뉘는 것이 보통이다(조지훈 1993 : 137). 그러나 태국 음운론에서는 태국어가 성조어이기 때문에 자음과 모음으로 음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무형성조(เสียงสัมผัส)와 성조부호로 나타내는 유형성조(เสียงวรรณยุกต์)가 음운을 구성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람캄행대왕 비문에서도 이러한 특징 중의 일부를 볼 수 있다.

13세기에 씌여졌다고 추정되는 「람캄행대왕 비문」을 후대에 정립된 음운론의 율격에 정확히 대입시키기에 다소 무리가 따르나 초기형태를 볼 수 있다는 데 가치를 두고 분석해 보기로 한다.

(1) 음절률(การวางจังหวะคำ : Syllabic System) 음절의 수 곧 자, 구, 행을 구성함에 일정한 수를 배열하는 율격으로 태국 시의 경우 4음절, 6음절, 7음절, 8음절, 9음절 2보격으로 이루어지는 다섯가지 종류가 있다. 이러한 율격을 맞추기 위해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를 사용하거나 의미가 없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람캄행대왕 비문에 나타나는 음절률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음절률을 맞추기 위해 음절을 구성하는 예

① 의미가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음절을 맞춘 예

เจ็บ ทาง กาย → เจ็บ ท้อง ข้องใจ
 께뻘 탕 까이²³⁾ 께뻘 텅 켕 짜이

²¹⁾ 「람캄행대왕 비문」의 음운론적 분석은 다음 항에서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²²⁾ 음수율(조지훈)과 음절률(김옥동)은 동의어로 쓰이나 태국어의 특질에 따라 음절률을 채택.

²³⁾ 태국어의 까이는 우리말로 적으면 2음절이지만 태국어에서는 한음절이다. 태국어의 음운체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정환승(2000)부록 264-271쪽을 참조.

② 의미는 없으나 소리음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예

อย่าวเรื่อนพอเชื้อเสือคำมัน

야오르언 퍼츠어 쓰어캄 만

พอเชื้อ와 짝을 맞춰 เสือคำ으로 운율을 구성하였다.

2) 음절률을 이루기 위한 행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6개의 음절이나 8개의 음절로 행을 구성하는데는 2 - 2 - 2 또는 3 - 2 - 3 형태를 취한다.

- 7개의 음절 일때는 2 - 2 - 3, 3 - 2 - 2, 2 - 3 - 2 의 형태를 취한다.

- 9개의 음절로 구성될 때는 3 - 3 - 3, 4 - 3 - 2, 2 - 3 - 4, 4 - 2 - 3, 또는 3 - 2 - 4 의 형식을 취한다.

람캄행대왕 비문에 나타는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4음절의 형태로 두 단어씩 음수율을 맞춘 경우

예) **ใน น้ำ - มี ปลา ใน นา - มี ข้าว**
 2 - 2 2 - 2
 나이 남 / 미 빨라 나이 나 / 미 카오

ไพร่ ผัว - ข้า ไทย ไพร่ ผัว - หน้า ปก
 2 - 2 2 - 2
 프라이 화 / 카 타이 프라이 화 / 나 뽉

② 6음절의 형태의 예

예) **ไพร่ ผัว - ลูก เจ้า - ลูก ขุน**
 2 - 2 - 2
 프라이 화 / 록 짜오 / 록 쿤

ท่น เผา - เทียน ทาน - เล่น ไฟ
 2 - 2 - 2

톤 파오 / 티안 탄 / 렌 화이

③ 7음절의 형태의 예

예) โอย่ ทาน - แล่ เปี - แล่ ญิบ ล้าน
2 - 2 - 3
오이 탄 / 래 빠 / 래 입 란

อัยว เรือน - พ่อ เชื้อ - เลื้อ คำ มัน
2 - 2 - 3
야우 르언 / 퍼 츠 / 쓰어 캄 만

(2) 음성률(การเล้นคำ : Stress System)은 음의 성질이 곧 음의 <장단> <고저> <강약>을 가려서 배열하는 것으로서 람캄행대왕 비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볼 수 있다.

1) 소리음(無性音과 有性音(การเล้นอักษรและการเล้นคำ))을 일치시켜 리듬을 맞춘 경우

ทั้งมา กาว ลาว
탕마 까오 라오

ใคร จัก นัก เล่นเล่น
크라이 짹 낙 렌렌

ได้ช้าง ได้วง
다이창 다이웅

2) 단어를 반복(การซ้ำคำ)으로 사용하여 음성율을 맞추는 경우

ใคร จัก นัก เล่นเล่น
크라이 짹낙 렌 렌

ใคร จัก นัก หัว หัว
크라이 짹낙 후어 후어

ใครจัก นัก เลื่อน เลื่อน

크라이작낙 르언 르언

3) 첫 단어와 끝 단어를 서로 일치시켜 리듬을 맞추는 경우

ใครจักใครค้าช้าง ค้า ใครจักใครค้าweinค้ำทอง ค้า

크라이작크라이카창 카 크라이작크라이카웅언카텅 카

4) 같은 문장을 각 문장에 사용하여 리듬을 맞추는 경우

ป่าพร้าวก็หลายในเมืองนี้ ปาลางก็หลายในเมืองนี้

빠프라우끼라이나이므응니 빠랑끼라이나이므응니

หมากม่วงก็หลายในเมืองนี้ หมากขามก็หลายในเมืองนี้

막무엥끼라이나이므응니 막참끼라이나이므응니

5) 균형(ความสมดุล)을 맞추기 위해 한 문장에 같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มีพระพุทธรูปทอง มีพระพุทธรูป มีพระพุทธรูปอันใหญ่

미프라풋타룻 텅 미프라풋타룻 미프라풋타룻안야이

มีพนมเบี๋ย มีพนมหมาก มีพนมดอกไม้

미파눔비야 미파눔막 미파눔덕마이

(3) 음위율 (สุนทรีภาพในคำ : Rhyme) 음의 위치 곧 두(頭), 요(腰), 각(角) 어디에나 정해진 위치에 비슷한 음을 반복함으로써 이루는 음악적 율격으로 <압운법>²⁴을 말한다. 태국의 음위율 สัมผัสอักษร(쌔ผัสอักขร)에는 สัมผัสชนิด 과 สัมผัสคั่น 이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สัมผัสชนิด (쌔ผัสчит)은 같은 두자음((頭자음이나 운을 계속하는 압운)으로 คู้, ทบคู้, เทียม, รถ, เทรบรถ 의 형식이 있다.

① คู้ (쿠)의 형식은 한 문장에 두자음이 같은음의 단어가 한 쌍인 형태이다.

มี ถิ่น ถิ่น

미 틈 틈

²⁴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성기옥(1986), 조지훈(1993), 이승복(1995), ยมโดยเพ็งพงศา(1992 : 209-230) 참조.

ใน นา มี ข้าว
나이 나 미카오

- ② ทบคุ (톱쿠)의 형식은 한 문장에 คุ 형식이 두 쌍인 형태이다.

หาเป็นครูอาจารย์ สั่ง สอน ไทย ทั้งหลาย
하펜크루아잔 쌍 쏜 타이 탕라이

ผีแล ผิด แพกแส กวาง กัน
피래 땃 뽁쎄 쌍 칸

- ③ เทียมรถ (티얌룻)은 한 문장에 같은 자음이나 소리음이 같은 자음의 단어가 4번 연달아 나오는 형식이다.

ใครจักใครค้าช้าง ค้า
크라이 짝 크라이 카창 카

- ④ เทียบรถ (티얌룻)은 한문장에 같은 자음이나 소리음이 같은 자음의 단어가 5번 연달아 나오는 형식이다.

ใครจักใครค้าเวนค้ำทอง ค้า
크라이 짝 크라이 카응언카텅 카

- 2) สัมผัสคั่น (째맛칸)은 두자음을 한 단어씩 걸러서 맞추는 압운이다. 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ท่วยปั่ว ท่วยนาง
투어이부워 투워이낭

เสียงเลื่อน เสียงขับ
씨양르언 씨양갑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람캄행대왕의 비문에서 음절률과 음성률 그리고 음위율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 람캄행대왕 비문의 문학적 가치

「람캄행대왕 비문」은 비문이라는 한정된 제약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간결한 문장이 산문과 운문의 여러가지 형태의 리듬으로 교차되면서 문학적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이 「람캄행대왕 비문」을 문학으로 간주하게 하였고 또 다른 편으로는 문학과 역사의 양면성을 띠고 있으면서 그 서술 방식에서 문학적인 표현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와는 구별된다는 실기문학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람캄행대왕 비문이 실기문학으로 규정될 수 있는 근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람캄행대왕 비문은 작자의 측면에서 볼 때 작자는 전란이나 그와 상응되는 역사적 현장에서 살면서 그것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고, 내용면에서는 작자가 직접 겪은 체험의 실상과 그에 대한 작자의 감상과 견해를 기록·표현하면서 감성에 호소한 실재의 기록이다. 또한 형식면에서는 사물과 사건에 대한 사실 記述을 원칙으로하는 '記'나, 記錄·記載의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특정한 사건을 전후한 변화 과정에 중점을 둔 '錄'의 형식을 사용했다. 그리고 효용면에서 볼 때 독자에게 사건의 진상을 알려 교훈을 주려는 점이 있다.

둘째로 이 작품의 구성이 람캄행이라는 인물과 독립국으로서 민족적 주체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사회적 현상이 연대성을 이루면서 당대의 구체적인 사실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학적 리얼리티를 보여주는 문학적 효과를 노리고 있다.

세째로 람캄행왕이 민족의식 고취와 크메르 문화의 모방을 지양하고 독창성을 강조하는 분명한 목적의식과 역사의식에 바탕을 두고 쓴 글이므로, 간결하면서 리듬감을 주어 문학적 효과 뿐 아니라 계도의 목적에도 충실하고 있다.

끝으로 「람캄행대왕 비문」의 문학사적 의의는 이러한 형태의 문학이 내용은 달리 하지만 계도문학으로서 고대문학을 주도 하였다는 점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람캄행대왕 비문은 실기문학의 범주에 포함시켜 새로이 분석할 수 있으며 성조어인 태국어에 있어서 중요한 문학적 표현 기술 중의 하나인 음운론의 효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유롭게 언어를 구사하는 산문적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도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 일정한 리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람캄행대왕 비문을 타이문자로 씌어진 최초의 문학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IV. 결론

지금까지 태국 쑤코타이 왕국의 람캄행대왕 비문의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분석하여 실기문학이라는 새로운 장르로 규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고 음운론적 분석을 통해 그 문학적 가치를 논의해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람캄행대왕 비문은 람캄행 대왕의 내력과 쑤코타이 왕국의 사회적 상황 그리고 왕의 업적 등을

기록한 역사적 유물이기는 하지만 기록과 표현에 있어 함축된 언어와 운율의 조화가 문학적 가치를 부여하는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2) 내용면에서 역사를 사실성에 입각하여 기록함으로써 화자의 목적 의식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어 단순한 기록문학에서 보다 구체적인 의미파악이 가능한 실기 문학으로의 규정이 가능하다.

3) 표현 형식에 있어서는 음절률과 음성률 그리고 음위율등이 나타나는 운문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람캄행대왕 비문을 태국 음운론의 효시라고 평가할 수 있다.

람캄행대왕 비문에 관한 연구는 오래 전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언어학과 역사학적 관점에 치우쳐져 있었다.

람캄행대왕 비문에 대한 문학적 연구의 의의는 '람(라마)' 칭호 부여받은 전지전능한 왕의 상징으로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는 물론 국민들의 의식까지 주도 하였던 람캄행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해와 현재의 태국인의 전통이나 의식구조에서 쁘코타이의 문화에 근거하는 점을 발견하였다는 것이다.

람캄행대왕 비문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그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과 분석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도 람캄행대왕 비문을 통해 쁘코타이 문화를 깊이있게 연구하고 그 문화가 태국인의 의식구조에 미친 영향등에 관한 연구와 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참 고 문 헌

- 김영애 (1986) 태국사, 관악서당
- _____ (1997) "쑤파쌌프라루엥과 태국인의 의식" 부산외대 한국외대 자매결연 기념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 김용숙, 황폐강 (1982) 한국문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
- 김옥동 (1996)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 김태준외 (1992) 임진왜란과 한국문학, 민음사
- 김현편 (1992) 장르의 이론, 문학과 지성사
- 김홍구 (1999) 태국학 입문, 부산외국어 대학교 출판부
- 노승환 (1991) "람캄행대왕 비문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성기옥 (1986) 한국 시가 율격의 이론, 새문사
- 이승복 (1995) 우리시의 운율체계와 기능, 보고사, 참조
- 이채연 (1995) 한국 서사문학사의 연구, 중앙문화사
- ___ (1995) "실기문학과 서사문학" <http://lotus.pwu.ac.kr/~lcy/susa.htm>
- _____ (1995) 임진왜란 포로 실기 연구, 박이정
- 장강남 (1997) "임란 실기문학의 개념과 장르적 성격", 숭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장휘옥 (1997) 불교학 개론 강의실 1, 장승
- 정은임 (1988) "궁정실기문학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정환승 (1998) "วัฒนธรรมนำทรปรากฏในสำนวนไทย" 외국어교육연구논집 ; 제12호
- _____ (2000) "태국어의 사동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조지훈 (1993) 시의 원리, 현대문학,
- 주종연 (1993) 한국고전문학 장르연구, 한신문화사
- 최유찬 (1995) 문예사조의 이해, 실천문화사
- 최창성 (1990) "태국[쑤코타이]문자의 발달과정 연구", 한국태국학회논총 제3호
- 황폐강 (1992) 임진왜란과 실기문학, 일지사

จุฬาลงกรณ์มหาวิทยาลัย (1984) ศิลปจารึกพ่อขุนรามคำแหงมหาราช

ดรไพตรี ธันวาท. การศึกษาคำในจารึกหลักที่ 1 ของพ่อขุนรามคำแหงมหาราช : สำนักพิมพ์มหาวิทยาลัยธรรมศาสตร์

พจนานุกรมศัพท์วรรณคดีไทย ฉบับราชบัณฑิตยสถาน สมัยสุโขทัยศิลปจารึกพ่อขุนรามคำแหงมหาราช หลักที่๑ :

บริษัทสหธรรมมิก จำกัด : ๒๕๓๖

แพ่งสุด, พรทิพย์. จันท์ลักษณะไทย : สำนักพิมพ์ฟีลิกส์เซ็นเตอร์ : ๒๕๓๙

พิพิธภัณฑ์สถานแห่งชาติสุวรรณคูเวรนายก. : ครูสภาลาดพร้าว กรุงเทพฯ : ๒๕๒๗

ดงศ, เพ็ง. วัชรารับทร้อยกรองในแง่คีตศิลป์

ยมโดยเพ็ญพงศา. การศึกษาร้อยกรองประเภทกลอนในแง่วรรณศิลป์และคีตศิลป์ไทย : งานวิจัยนี้ได้รับทุนอุดหนุน
ประเภทเงินรายได้จากมหาวิทยาลัยศรีนครินทรวิโรฒภาคใต้ : ๒๕๓๕
สำนักงานเลขานุการกรมกรมศิลปากร อุทยานประวัติศาสตร์สุโขทัย : ๒๕๓๑
สมคิด โชติภวณิชย์ มรดกโลกอุทยานประวัติศาสตร์สุโขทัย ศรีสังขนาลัย กำแพงเพชร :
บริษัท สำนักพิมพ์สมพันธ์ จำกัด